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 1 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제시

-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올해 경제성과를 총결 짓고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함
-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발전 수준이 제고되고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거두었으며, 개혁 개방이 전면 심화되고 취업·물가·식량·에너지·인민생활 안전을 보장하여 사회경제가 안정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함
- 한편 현재 경제 형세에 대해서는 경제회복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수요 위축, 공급 충격 등의 압력이 비교적 크며, 외부환경이 불안정하여 중국 경제에 주는 영향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함
-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확대(거주환경 개선·신에너지차·실버서비스 등 관련 소비 지원, '14차 5개년 계획' 대형 프로젝트 실시, 국가 중점 프로젝트 건설시 민간자본 참여 장려, 첨단기술·핵심설비·에너지 등의 수출 확대)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가속화(제조업 핵심기술 연구 및 부품 생산의 자주성 제고, 신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신에너지·인공지능·바이오·녹색저탄소·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보급)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민영기업 발전을 장려(국유기업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장) △외자유치 강화(현대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디지털동반협정 등을 적극 추진, 외자기업의 무역투자에 최대한 편리를 제공, 대표적인 외자프로젝트 건설을 추진) △금융리스크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부동산 안정적인 발전 보장) 등으로 분석함

자료원 : 신화사  
<https://baijiahao.baidu.com/s?id=1752379720664942282>

## 2 中, 11월 석탄·석유·천연가스·전력 에너지 생산 증가세 유지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1월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유지함
  - 석탄 생산량은 3.1% 증가한 3.9억 톤, 수입량은 7.8% 감소한 3,231만 톤으로 수입량이 전월 대비 9% 증가함. 원유 생산량은 2.9% 증가한 1,678만 톤, 수입량은 11.8% 증가한 4,674만 톤이며, 수입 증가율이 전월 대비 2.3%p 둔화됨
  - 천연가스 생산량은 8.6% 증가한 189억㎥, 천연가스 수입량은 3.9% 감소한 1,032만 톤으로 수입량 하락폭이 전월 대비 14.5%p 축소됨. 전력 생산량은 0.1% 증가한 6,667억 킬로와트시로 생산량 증가율이 둔화됨
  - 한편 1~11월 석탄 생산량은 9.7% 증가한 41억 톤, 원유 생산량은 3% 증가한 1억 8,777만 톤, 천연가스 생산량은 6.4% 증가한 1,974억㎥, 발전량은 2.1% 증가한 7.6조 킬로와트시로 나타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12/16/content\\_25954721.htm](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12/16/content_25954721.htm)

## 3 中,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 9.8% 감소

- 올해 1~11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한 12조 3,863억 위안(약 2,325억 원), 이 중 주택 투자는 9.2% 감소한 9조 4,016억 위안(약 1,765조원)으로 집계됨
  -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동산 시공면적은 6.5% 줄어든 89억 6,857만 평방미터이며, 이 중 주택 시공면적은 6.7% 줄어든 63억 3,916만 평방미터임
  - 부동산 기업에 조달된 자금은 25.7% 감소한 13조 6,313억 위안(약 2,559조원), 부동산 개발 경기지수는 94.42로 나타남(\*2021년 11월 경기지수는 100.45)
-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70개 주요도시의 분양 주택 판매가 변동 상황'에 따르면 올해 11월 1선 도시는 전월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고 2, 3선 도시는 전월 대비 하락폭이 감소하거나 전월과 동일했음.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1선 도시는 상승폭이 하락하고 2, 3선 도시는 하락세가 둔화됨

- 11월 신규 분양 주택 판매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51개로 10월보다 7개가 줄어들었고 중고주택 판매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62개로 전월과 동일했음

자료원 : 재경망, 중국소비자신문

<http://economy.caijing.com.cn/20221215/4906738.shtml>

[http://www.ce.cn/cysc/fdc/fc/202212/19/t20221219\\_38294529.shtml](http://www.ce.cn/cysc/fdc/fc/202212/19/t20221219_38294529.shtml)

## 4 저장성 항저우시, 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 개최

- 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가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개최되었으며, 행사 기간 동안 315건의 디지털 제품을 전시하고 해외업체 800개사가 참가하여 무역거래액 374억 위안(약 7조 원)을 달성하였음
- 또한 '인터넷+', 신소재, 생명건강 등 3대 분야 관련 89건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액은 1,100억 위안(약 21조 원)으로 집계됨
- 엑스포에는 벨기에, 싱가포르, 미국 등 50여개 국가의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가하였으며, 양자내성암호(PQC) 플랫폼, 중국산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PIE-Engine, 메타버스 개방플랫폼 등 일련의 신제품, 신기술, 신규 서비스를 집중 선보였음
- 이번 엑스포에서 뉴질랜드, 칠레, 한국 등 국가의 대표들은 디지털경제의 제도적 개방과 디지털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토론하였음

자료원 : 재경망

<http://economy.caijing.com.cn/20221215/4906767.shtml>

## 5 中, 스마트홈 시장 고속 성장세 유지

-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일반가전 시장은 일부 충격을 받았지만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TV, 청소기, 대화면 LDC 냉장고 등 스마트 가전은 여전히 소비자의 환영을 받으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2년 중국의 스마트가전 판매액은 전년 대비 54.9%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5년간 출하량은 15~25%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스마트가전 시장규모는 2020년 5,155억 위안(약 97조원)에서 2021년 5,500억 위안(약 103조원)으로 성장하였음. 소형가전 시장규모도 꾸준한 성장세로 2021년 시장규모는 1,557억 위안(약 29조원)이며 2023년에는 1,924억 위안(약 3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
- 시장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홈 퍼니싱 산업 질적 발전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홈 퍼니싱 산업 관련 50개 유명 브랜드와 500개의 체험센터, 15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을 밝혔음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212/202212150946431013.html>

## 6 광저우시, 대기업·대형 프로젝트 유치로 경제 성장 촉진

- 올해 1~11월 광저우시에서 신규 유치한 프로젝트와 신규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6.7%, 28.5% 증가, 제조업에 실제 이용한 외자액은 무려 60% 이상 증가함. 이로써 광저우시에 투자한 글로벌 500대 기업은 335개사, 프로젝트 건수는 1,658건으로 집계됨
- 광저우시 화두구(花都区)는 글로벌 500대 기업과 업계 선도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있으며, 12월 12일 글로벌 500대 기업인 독일 ZF그룹(采埃孚)은 화두구에 100억 위안(약 1.9조원) 규모의 자동차 전장부품 공장 건설계획을 밝혔음. 신규 공장은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임
- 이 외 광둥성 EQUINOX 바이오의약 회사는 화두구에 본사 설립을 위하여 부지를 확보했으며, 메이탄그룹은 화두구에 '메이탄 웨강아오 대만구 소매과학기술산업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음

자료원 : 재경망

<http://economy.caijing.com.cn/20221215/4906708.shtml>

## 7 中, 2022년 산업용 로봇 생산량 30만 대 돌파 예상

- 2022년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와 리튬, 태양광 발전 등 신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산업용 로봇 판매량이 30만 대를 넘어설 전망

- 중국 로봇회사 가오공(高工)의 회장은 2022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30.3만 대로 지난해 26.1만 대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나 전년도 54%의 증가율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함. 중국 본토기업이 생산한 산업용 로봇은 13.2만 대로 전체의 40%로 추산됨
- 또한 과거에는 자동차와 3C제품(컴퓨터, 휴대폰 및 소모성 전자제품) 관련 산업용 로봇 수요가 60%에 근접했으나 올해는 리튬, 태양광 발전, 신에너지차 관련 수요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였고 반도체, 물류창고 관련 수요도 증가함
- 반면 3C제품 분야의 수요는 현저히 하락하고 금속가공, 가전, 식음료품 분야의 수요 증가율도 하락세임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2-12-15/A1671050222460.html>

## 8 中,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유치 비중 지속 상승세

- 올해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 중이며 1~10월 외자이용액이 지난해 전년 수준에 근접함. 2020년에는 전년 외자이용액이 1조 위안(약 186조원)을 달성, 2021년에는 1~11월 외자이용액이 1조 위안을 돌파, 올해는 1~9월 외자이용액이 1조 위안을 넘어섰음
- 올해 1~10월 상하이시 외자이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한 205.6억 달러로 다국적 기업 본사 51개, R&D센터 19개를 신규 유치하여 다국적 기업은 882개사, R&D센터는 525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독일의 헤레우스(Heraeus)는 최근 상하이, 저장 등지에서 여러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올해 대중 투자규모가 신기록을 달성하였고, ABB 로봇 슈퍼공장이 12월 2일상하이시 푸둥신구에서 생산을 개시하는 한편, 공장 내부에 글로벌 R&D센터도 설립하였음
-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점차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고 산업망 구축을 중요시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음. 독일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광둥성 잔장(湛江)에 일체화 기지 프로젝트를 준비중이고, 에어버스는 쑤저우공업단지에 R&D센터를 설립했으며, 로레알은 중국에 투자회사 설립, 아스트라제네카는 칭다오시에 희귀병 치료 혁신센터를 건설 등을 추진 중임

- 12월 9일 개최된 '2022년 선전시 글로벌투자유치대회'에서 315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투자 예상규모는 8,790억 위안(약 164조원)으로 첨단제조업,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약·헬스, 해양산업,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를 망라함
-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국의 GDP가 2023년 하반기에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2024년까지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 외상투자 발전보고서(2022)'에 따르면 중국의 외자이용액은 2012년 1,117억 달러에서 2021년 1,735억 달러로 증가하여 글로벌 2위를 유지 중이며, 연속 30년간 개도국 1위를 달성하였음
- 지난 10년간 누적 외자이용액이 1.2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이용 비중이 2012년의 14.1%에서 2021년의 30.2%로 상승함
- 한편 중국의 외자 유치에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항, 개발·개방시험구 등에서 외자 관리시스템 혁신을 도모한데 있다고 분석함

자료원 : 신화사, 경제참고보

<http://news.enorth.com.cn/system/2022/12/15/053441526.shtml>

[http://www.jjckb.cn/2022-12/18/c\\_1310684710.htm](http://www.jjckb.cn/2022-12/18/c_1310684710.htm)